

불교 실버타운 건립

조계종 복지재단... '보리수마을' 10월 완공

유료노인종합복지시설 '보리수 마을'(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대리 산38번지)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송월주스님)의 첫번째 사업으로 전개된다. 조계종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세움실버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될 보리수 마을은 부지면적 2만여평, 연건축면적 7천평의 대규모 타운으로 사회복지법인 세움실버(대표이사 이덕천)가 지난 92년 11월 설립인가를 받아 93년 10월부터 시공을 시작, 현재 80%의 공정을 마친상태다. 보리수마을은 오는 10월 공사가 완료되면 주거시설을 갖춘 15평형 3백60세대에 7백여명이

입주 가능하게 되어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종교시설·여가시설등도 갖추게 된다.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제반 경비는 사회복지법인 세움실버가 부담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입주자 모집 및 홍보 각종 행사진행, 입주자를 위한 불교신앙시설 설치 및 복지프로그램을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월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첫 중점사업으로 전개되는 유료노인종합복지시설 보리수 마을은 앞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세움실버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임종복지시설 설치운영·의료공제사업등의 제반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대리 산38번지에 건축중인 '보리수 마을' 조감도.

경찰가족위한 대법회 인천경순단 지난28일

인천지방경찰청 경순단(지단장 범용스님)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흥륜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나라와 경찰가족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날 기원 대법회는 인천지방경찰청 김광식 청장을 비롯, 인천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장과 경찰간부, 경순장, 경찰가족과 신도 3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봉사활동 구성키로

조계종 동화사, 불국사, 은해사, 고운사 본말사 2백50여 스님들은 지난 25일 경주 봉곡도호원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화시대 대비와 불교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결성된 4개 본사 협의회는 각 본사 주지스님을 지도준비위원으로 도영, 운성, 동령, 설송스님을 실무준비위원으로 임명하고 오는 6월 2차 모임을 갖고 정식 출범키로 했다.

검정고시 일정변경 유감표명

교육부(장관 김숙희)는 지난달 20일 검정고시 일정변경과 관련 교계단체에 공문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준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불교인권위 인권상 선정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 26일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선정 발표했다.

부산 찬불합창제 성황

부처님의 법음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은 제1회 찬불합창제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3천여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산불교합창단협의회(회장 김경선)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합창제에는 한미음선합창단, 범어사합창단 등 7개 지역합창단이 참석했다.

조계종, 사찰운영위 구성 저조

지난달 25일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조계종 사찰운영위원회가 4월27일 현재 5개 본말사 96개로 전체 사찰 1천7백 76개의 6%에 불과 대략미흡이 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교방송 시장 선출위서 선일

불교방송 시장이 앞으로는 이사회내 '시장 선출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달 21일 이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 간담회는 당초 계획했던 이사회가 선임미흡으로 유보되자 개최됐다.

조계종 스님 BBS 출연 중단

조계종 방송특위가 '조계종 스님의 불교방송 출연 중지'를 촉구함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됐다.

불화산 청소년 수련원 어린이날 축제 개최

불화산 청소년 수련원(원장 신진규)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수련원에서 제 7회 불화산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부모님 은혜 호칭만곡(昊天極)'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글짓기, 사생대회 등의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2부에는 민속씨름, 특기 자랑, 연예인과 청소년 합동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관음성지 중창불사 낙산사, 4년만에 보타전 회향

강원 양양 낙산사(주지 마근스님)가 보타전을 비롯한 대규모 관음성지 회향불사를 지난달 23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관음성지 중창불사는 일주문, 해우당, 심검당, 보타라과 7관을

성상, 32운상, 1천5백관음상을 모신 보타전이 4년만에 조성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음성지 회향법회를 계기로 모든 불자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관음자를 찾아 이타행을 몸소 실천하자"고 말했다.

한편 관마을 선원 광주지원(지원장 예월)도 4월 29일 법당 준공 및 대행스님 초청 대

국제 포교사 양성 계획

조계종 연수과정 거쳐 해외전법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 전법교화에 앞장설 국제포교사가 종단차원에서 양성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총12명(스님 6명, 재가자 6명)의 국제포교사를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험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의 연수를 사기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은 해외에서 관공사할 때 파견 전법교화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현지언어 구사 능력 미약, 특장국가 편중, 교포대상포교,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해외포교사의 활동과약이 어려웠던 점 등 그동안 유망무실했던 국제포교가 새롭게 활기를 띠 전망이다. 포교원은 이번 연수의 모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며 외국 인과의 실습, 수련대회를 갖는 등 내실을 기하는 등 종단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02)720-7060~4

제주영탑 30기 완공

한마음 선원 광주지원 법당 준공

제주지역에 최초로 불교 영탑공원이 생겨 시선을 끌고 있다. 한마음 선원 제주지원(지원장 예월)은 4월 23일 영탑공원 준공 및 대행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영탑은 30기, 앞으로 4천여평 부지에 총3백20기를 세울 계획이다. 연일과 6바라릴 상징 지붕, 4성제 기간형의 흰색 영탑에는 3대의 영가를 지속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

법회를 지역기관장 및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사경공덕원 개원법회 사경공덕원(원장 한불은)은 지난달 30일 녹수청사에서 2백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전 제주지사 신규법 우근민 씨등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명의 근본이 불(佛)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의 보배이며 마음의 선장인 주인공의 뿌리를 찾아 영원히 죽지않는 길을 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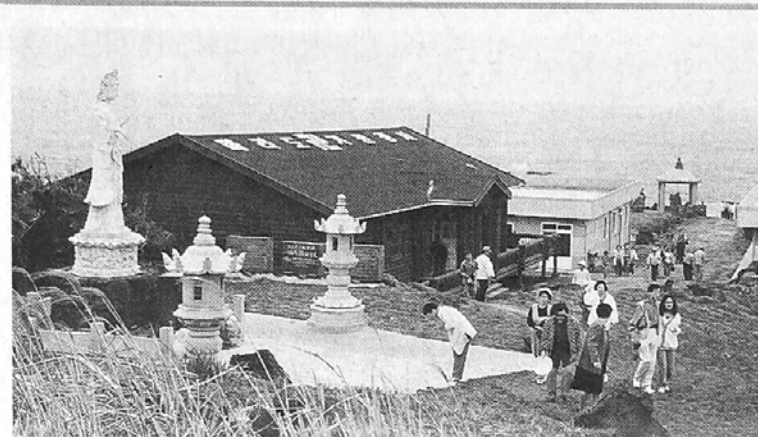
관음성지 중창불사

낙산사, 4년만에 보타전 회향

한편 관마을 선원 광주지원(지원장 예월)도 4월 29일 법당 준공 및 대행스님 초청 대

마라도는 근래까지만 해도 종량으로 희생된 업저의 설화가 얽힌 '할매담'이 주민의 안녕을 맡아왔다. 기원정사가 황건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초하루, 보름 그리고 바다일을 나가기에 앞서 부처님을 먼저 찾는다. 정기법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개방된 법당은 마라도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원정사는 불교성지로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 그곳에 섬이 있어 가야 하기보다는 이제 그곳에 통일영원 불교성지가 있어 꼭 가야만 하는 우리의 땅이다. <마라도=이준엽 기자>



◇분단50주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기원정사는 통일영원 1백일 기도를 입제한다. 매일 수백명의 관광객이 기원정사를 참배하고 있다.

마라도 '기원정사' 분단 50년 통일영원 백일기도

낙도의 목탁소리 북녘하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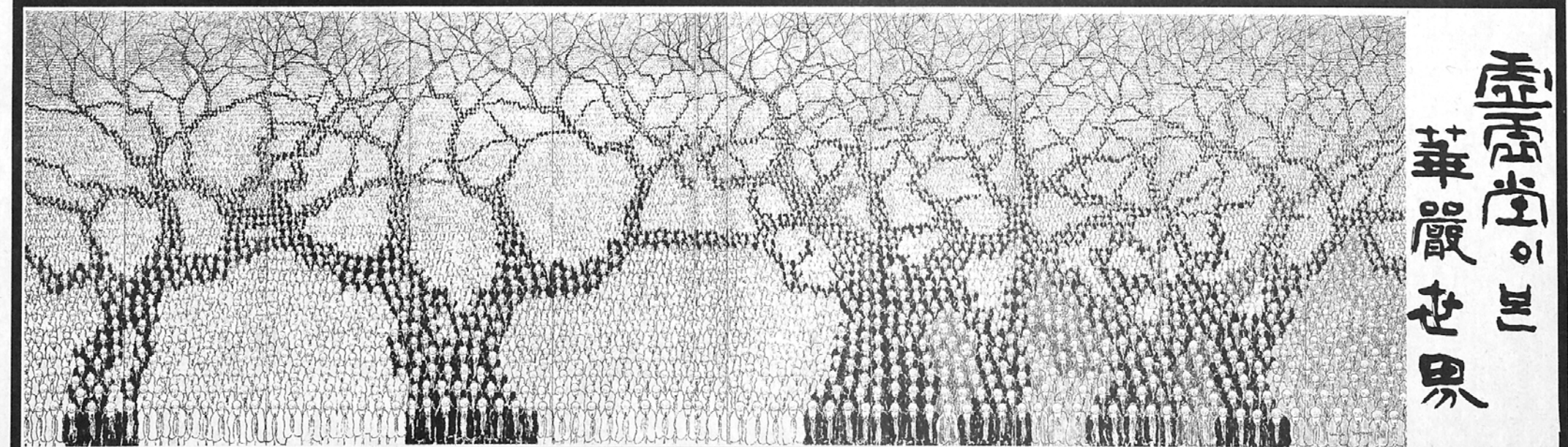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찾는 길은 하늘을 날고 땅을 가로질러 다시 물길을 헤쳐 가야 한다. '마라도 불교성지 해수관음 기도도량, 기원정사'를 찾아가는 길은 20여가구가 용기종기 배에서 내리는 신혼부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마라도는 10만여평의 작은 섬이다. 넓은 초원위에 동화속 그림같은 집과 사람들이 살고 있다. 기원정사(주지 정관)는 20여가구가 용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지나 남쪽 해변가에 자리해 있다. 종각, 대웅전, 요사채와 12척 높

오신 날을 맞아 이곳에서 통일영원하는 대법회가 열린다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 전국의 모든 불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도가 관광지보다는 통일성지로 개발되기를 바란다"는 이장 김행남(61)씨는 처음 맞는 기원정사 1백일 기도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 입제...광복절 회향

이의 해수관음상이 최남단 사찰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기원정사는 해방 50주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통일기원 1백일기도 준비로 부산한다. 8월 광복절에 회향하는 이번 기도는 분단 50년을 맞아 전국의 불자가 합한 바다를 건너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이면 3천여명의 관광객이 마라도를 찾고 있어 종교를 초월, 연인원 1만여명이 통일기도에 참석할 전망이다"는 정관스님의 설명이다. "마라도 주민은 대부분 불자입니다. 땅끝에 살지만 통일영원은 이곳 주민도 간절합니다. 마침 뜻깊은 부처님

와 제주지역 불자들은 마라도 남단 언덕배기에 해수관음상을 조성하고 '지비와 광명'이 마라도에서 한라산으로 한라산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덮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소서"라며 원을 세웠다. 기원정사의 대웅전은 통나무 법당이다. 판 바둑판으로 단청을 하지 못해 별장연상케하지만 대웅전은 60평 규모의 제법 큰 법당이다. 법당내에는 국내사찰에서 보기드물게 용왕탱화가 자리해 있다. 바다만을 바라보고 사는 주민을 위한 토속신앙이 함께 한 것이다. 그러나 기원정사의 참견의의를 보여 주는 것은 법당 우측에 자리



華嚴世界

허허당스님의 팔만사천동자(화엄법계도) 20년간의 방황과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낸 대작 불사!

허허당스님의 팔만사천동자(화엄 법계도) 20년간의 방황과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낸 대작 불사. 꿈이 펼쳐진 화선지에서 생명의 열매를 가득 넘겨주는 그 아름다운 처리로 그림이리보다 수천 수만의 부처님이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듯 해 참으로 신비하고 기이하기조차 하다. 스님에서 이 작품을 그리면서 작가모니불을 팔만사천동자나 열송하며 부처님의 상모를 그리고 팔만사천동자의 아이러블을 열송하며 가사를 일하고 팔만사천동자의 관세음 보살을 열송하면서 정진을 했다고 하니 그 공덕 이루 말할 수 없다. 관세음불이 앞다투어 이시대의 최고 걸작이라 칭송을 서슴치 않았던 허허당(향후)스님의 영혼의 세계를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虛虛堂(법명: 향후스님) 1956. 11. 15일생 경북 고령 덕곡에서 태어나 1974년 가야산 해인사에 출가하여 해운스님을 은사로 1976년 득도 향공선사문에서 선수행을 받음 1978년 경남·남지 도굴에서 도반, 무명스님과 함께 정진을 하다 문득 깨달은 바 있어 붓을 삼기 시작 1983년 지리산 벅속사 방광선원에서 선수행과 함께 본격적인 선화작업에 들어감 현재 지리산 안국사에서 정진중

전시경력 1984제1회 虛虛堂 釋壽昊 오랫말 회(중앙회향) 1986제2회 " " 어디로 갈까(로노와르아트홀) 1988제3회 " " 생명의 열매(이아기마당전시실) 1991제4회 " " 가고가고 또 간대(예술마당 숲) 가고 또 간대 사회질 출간 1992 제5회 " " 이리 꼭(백아미술관) 1995제6회 " " 허허당의 화엄세계 부처님오신날 기념전(서울역문화회관) 1995. 9. 허허당 만행일기 수필집 출간예정(웃기에 별을 달고 달을 달아서)

허허당스님의 팔만사천동자(화엄법계도) ■예약보급안내 ■예약시 ₩190,000 직품인도시 ₩300,000 ■예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전달합니다. 불사에 전념해온 심전불사에서 스님과의 인연에 따라 20년에 걸쳐 완성한 이시대 최고의 선화 허허당스님의 팔만사천동자(화엄법계도)를 영인본 10 폭병풍으로 제작 215점을 한정예에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전시장소: 서울역 문화회관(1·2층) ■예약처: 三田佛事(조계사후문) ■전시기간: 1995.4.29~5.10 전화: (02)735-5293, 732-6096 ■예약구좌: 053-01-227202 국민은행 058-01-0317-258(예금주: 화선사)